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6.11.(목)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1
담당부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연구팀)	소장	김성곤 (031-8008-8364)				
		팀장	임성률 (031-8008-8366)				
		담당자	김광배 (031-8008-8354)				

경기도, 갯오징어 3만 마리 경기 바다에 시험 방류. 어업인 소득 향상 목적

○ 경기도, 경기 바다에 자체 생산한 갯오징어 3만 마리 시험 방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화성 연안에 갯오징어 3만 마리를 시험 방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험 방류한 어린 갯오징어는 연구소가 지난달 5월부터 어미를 사육해 수확한 알을 실내 사육 수조에서 인공 부화시킨 개체들로 방류 전 질병 검사까지 마친 우량종자다.

갯오징어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대표적인 연안 어종으로, 최근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연안에서도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성장 속도가 빨라 1년 이내에 상품성 있는 크기로 자라며, 연안에 머무는 습성이 강해 높은 방류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만~5만 마리의 갯오징어 종자를 경기 바다에 시험 방류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갯오징어는 경기도 연안의 주요 수산자원으로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라며, “지속적인 종자 생산기술 개발과 시험 방류를 통해 풍요로운 경기 바다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다양한 수산생물 연구 및 시험 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 방류 시기, 해역 특성 등을 분석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